

중금리 대출 늘렸더니 건전성 악화 인터넷전문은행 ‘포용금융’ 딜레마

케이·카카오·토스 인뱅 3사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당국제시 목표치 30% 넘어서
고정이하여신 비율 동반 상승세
“우량 중·저신용자 선별, 위험 낮춰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가 커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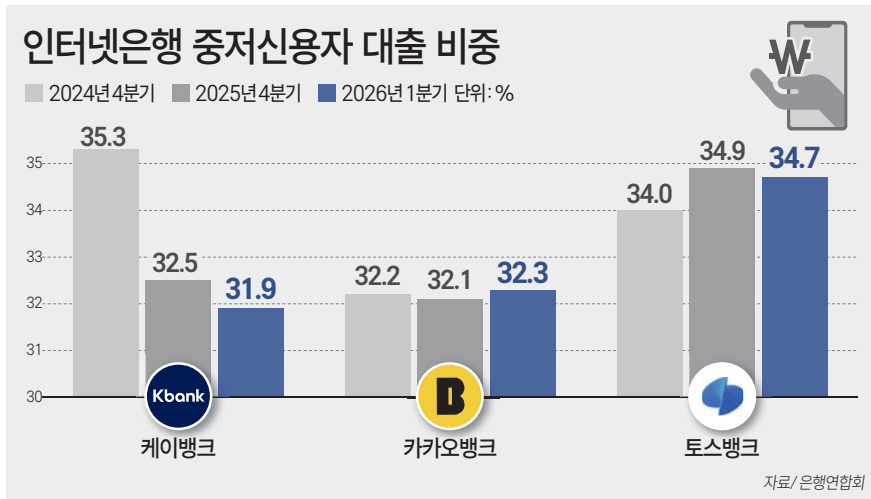
고정이하여신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2분기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1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1억원(3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여신 증가율인 13.9%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2분기 0.51%에서 올해 2분기 0.59%로 0.08%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082억원에서 7.3% 늘었고, 비율 역시 0.58%에서 0.59%로 올랐다.

카카오뱅크도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6월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 2401억원보다 163억원(6.8%)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여신이 44



조8000억원에서 48조2000억원으로 7.6% 증가하면서 이른바 ‘분모 효과’로 비율 상승을 막았지만, 부실채권의 절대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3%에서 0.54%로 상승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올해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 31.9%, 카카오뱅크 32.3%, 토스뱅크 34.7%를 기록했다. 세 은행 모두 당국이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30%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추가로 확대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수록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연체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가계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취약차주의 상환 여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정이하여신과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자체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공급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 중·저신용자를 선별해 부실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수익성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서울 집값 1.09% ↑… 9개월 만에 최대폭

자치구별 성북구 1.73% 최대 상승 이어 노원구 1.64%, 중랑구 1.35%

서울 집값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역이 오른 가운데 전세와 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9% 올랐다. 전월(1.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10월(1.1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서울의 월간 집값 상승률은 올해 3월 0.39%를 저점으로 ▲4월 0.55% ▲5월 0.90% ▲6월 1.03% ▲7월 1.09% 등 9달 연속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관광 분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의 상승률이 1.73%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 1.64% ▲중랑구 1.35% ▲구로구 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56%, 0.50%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10억 2364만원이며, 중위가격은 서울 7억9519만원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5% 올랐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0.72% 상승했다.

서울은 전월세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전세가격지수와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3%, 0.94%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전세와 월세 모두 노원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성북구와 강동구, 송파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040만원, 월세가격은 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푸본현대, 상반기 당기순익 1586억 기록

신계약 CSM 확보 등 본업 성과

푸본현대생명이 올해 상반기 1586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부분의 투자손익 개선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보장성 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해 보험 본업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의 2026년 상반기 순이익은 1586억원으로, 신계약을 통한 보험계약 마진(CSM) 확보 등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뤘다.

자산운용 부문 성과에 더해 지난 3년간의 체질개선을 통해 상품 포트폴리오와 영업 채널을 재정비하고,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

반을 구축한 결과다.

특히 최근 출시한 ‘세븐하이픽 애플러스’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보장성상품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상반기 CSM은 원수 보험 기준 1788억원이다. 신계약을 통한 CSM 확보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올 상반기 신계약에 따른 CSM 증가 효과는 703억원으로 전년 동기(512억원) 대비 약 37% 증가했다.

푸본현대생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판매채널 다변화를 지속하고, 시장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상반기 실적 선방… 영업정지 충격 제한적

롯데카드, 상반기 순익 56% 증가
영업비용 4.5% ↓ 비용 효율화 주요
하반기 1.5개월 신규 카드업무 중지
이자수익 등 본업 수익으로 ‘방어’

롯데카드가 하반기 영업정지 부담을 완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기적인 재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원 이탈과 영업 정상화 이후 마케팅비 확대, 법적 리스크 등이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8일 공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상반기에 6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76.5% 늘었다. 비용 효율화가 주효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1조5544억원에서 1조4851억원으로 4.5% 감소했다. 영업수익은 1조 6085억원에서 1조5808억원으로 1.7% 줄었다. 수익 감소 폭보다 비용을 2.5배 이상 크게 줄이며 수익성을 방어했다.

◆ 단기 영업정지 파장은?

상반기 실적 선방에 따라 하반기 영업정지로 인한 재무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신규 회원 대상 카

드 업무가 중지된다.

기존 회원 기반의 이자·수수료 등 본업 수익은 안정적이다. 실제 롯데카드 상반기 영업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그중 본업 영업인 카드수익은 증가했다. 카드수익은 약 2430억원으로 작년 2289억원보다 약 141억원(6.2%) 확대됐다.

특히, 해외 이용액 증가에 따른 국제거래수수료(+61억원), 프리미엄 상품 라인 확대에 따른 연회비(+53억원), 가맹점수수료(+39억원) 등이 본업 성장을 견인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단기 수익성 방어 가능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 신규 회원 영업이 전면 중단되면 모집수당과 발급비,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수익 공백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롯데카드 판매사업비는 약 3007억원으로, 전년 동기(2731억원)보다 10.11% 늘었다. 신규 모집 중단에 따라 전체 판매사업비 중 모집비용과 심사발급비 등 고객 유치 비용이 일부 줄어들면, 상반기 늘어났던 판매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회원 이탈·마케팅비 재확대·법적 리스크 등 변수

다만, 변수는 기존 회원 이탈과 향후

영업 재개 시점의 마케팅비 급증 가능성이다.

김석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번 1.5개월 영업정지 영향으로 회사의 개인 실질 회원 수와 총 카드 이용 실적 점유율은 전년 대비 일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하된 시장지위 회복을 위한 경비 부담 확대가 나타날 경우 수익성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리스크 역시 부정적 요인이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 말 기준 총 1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총 소송가액은 약 37억원이다.

향후 동일한 이슈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롯데카드가 부담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정지 종료 이후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객 소비 패턴과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와 조달 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를 지속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회복과 사업 체질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 ‘대우네 뿌듯트럭’이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현장을 방문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현장에 ‘대우네 뿌듯트럭’ 간식차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현장에 간식차를 보내는 프로그램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 4’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네 뿌듯트럭’은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업한 사례를 담은 영상을 선정해 간식차를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소통과 업무·환경 개선, 사내 소모임 활성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담은 60초 이내 영상을 공모했다.

심사를 거쳐 ▲진해신항 투기장 호안 2공구 ▲블랑썬 74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 2·3단지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그랑 르피에르 등 국내 현장 5곳이 선정됐다.

현장 임직원들은 소통과 안전관리 강화,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퇴근 후 소모임 등 팀워크 활동도 소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채리 수습기자 cr56@